

| 정책조정실 한민수 차장 |

1. 사상 최악의 폭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지원 내용 농민을 두 번 울려

○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남부지방 피해와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여,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응급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더라도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그다지 특별한 지원이 없어, 일선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작년 11월 개정된 특별재난지역 지원 기준에 의하면, 주택·농경지·농작물·산림작물·축산물 및 농업용시설의 복구시 일부 자부담분을 국고와 지방비로 전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각종 구호 대책 및 대파비·농약대·시설복구비 등을 '재난지원금'으로 단일화하여 재난등급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마저도 1가구당 △2006년도 최고 3억원 △2007에서 2009년까지 최고 2억원 △2010년 이후 5천만원 상한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 이 때문에 유리온실·축사 등과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복구에는 획기적인 국고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젊고 유능한 농가들이 고액의 농가부채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풍수해보험·가축공제 등의 보험 제도를 통해 농민 스스로가 재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으로부터 일관하고 있다. 일선 농민들은 개방 확대와 가격지지정책 후퇴 속에서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농가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속 빈 강정'과 같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2. 허울뿐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연구용역 결과...정대근 회장 퇴진운동과 경제사업 활성화 촉구 활동을 집중 전개해야

○ 6월말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 전제조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맞춰 농림부는 신경분리위원회를 확대·개편되는 등 농협중앙회 개혁 운동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원을 수취한 혐의로 구속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7월 27일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한농연 및 전 농업계는 정대근 회장과 농협중앙회의 몰염치한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퇴진 촉구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농협중앙회는 현행 사업체제 하에서 신경분리가 농민조합원·일선 조합에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신용사업 자본금 확충에만 7년, 경제사업 자립화까지는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외면한 것이다.

○ 특히 농협중앙회가 총 13조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대형유통매장과 하나로마트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형유통업체(할인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자칫 무모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경제사업연합회의 당면 과제 중 '적자 해소'에만 집중하면, 농협중앙회는 자회사를 통한 수익률 제고로 적자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반면 일선 조합은 농협중앙회와의 '원청-하청 관계' 속에서 자체 경제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워지는 역기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시 신용사업연합회의 수익 시스템에 대한 통제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 자회사 내부에서 여러 방법으로 수익 수준을 조절할 경우, 신용사업연합회의 수익 자체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용사업연합회의 수익을 경제·교육지원사업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 자회사의 수익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3. 한-미 FTA 2차 협상 평가 및 향후 투쟁 계획

○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FTA 2차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3차 협상이 미국(워싱턴 혹은 시애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차 협상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한 농업 분야에서는, 양국의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2차 협상에서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 수입쿼타(TRQ) 제도, 수입부과금(Mark-up) 및 농산물 양허안의 기본골격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한-미 양국은 각국의 입장에 따라 양허안을 작성하여 상품/섬유/농업 양허안을 8월 15일 이전에 일괄 교환키로 하였으며, 통합협정문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위생·검역(SPS) 분야는 양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으며, 이를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하는 방식으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다.

○ 한-미 FTA 농대위와 범국민본은 7월 12일 2차 범국민대회와 13일 한-미 FTA 장례식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활동 전개하였다. 이로써 협상 초기 조성되었던 국민들의 한-미 FTA 찬성 여론을 반대 및 신중론으로 돌릴 수 있었고 언론 보도 또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9월 5일의 3차 협상부터 10월에는 4차 협상, 12월에는 5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3차 협상 이후에는 양허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